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18, Vol. 30, No. 1, 55-79

한국판 관계적 공격성 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배 라 영 최 지 영†

한남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Morales와 Crick(1998)이 개발한 관계적 공격성을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 하는 것이다. 관계적 공격성은 관계손상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격성이다. 이를 위해 4년제 대학생 313명(남: 113명, 여: 200명)을 대상으로 구인타당도 및 공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구인타당도는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하였고, 공인타당도는 공격성, 분노, 우울 및 자아존중감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관계적 공격성이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관계적 공격성 척도는 목표성취를 위한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3문항, 지각된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4문항, 연인관계에서의 애정적 관계적 공격성 3문항의 총 10문항으로 원척도와 같은 3요인으로 구성되었고, 신뢰도는 .55에서 .74로 나타났다. 둘째, 관계적 공격성 척도는 공격성, 분노, 우울과 유의한 정적상관,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여 공인타당도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관계적 공격성은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 보다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애정적 관계적 공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후속연구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관계적 공격성, 대학생, 척도타당화, 신뢰도, 타당도

---

* 본 연구는 배라영(2017)의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최지영,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Tel : 042-629-7494, E-mail : choi0122@hnu.kr

www.kci.go.kr

관계적 공격성은 관계손상을 목적으로 특정한 사람을 배제시키거나 악의적 소문을 퍼뜨려 사회적 지위를 손상시키는 것으로서(Crick & Grotpeter, 1995) 관계 조작, 사회적 배척, 악의적 소문 퍼뜨리기 등의 특징을 보여 왔다. 발달단계별로 관계적 공격성은 아동기에 동성의 또래집단 내에서, 청소년 중기 이후에 이성의 친구와 애정관계 내에서, 성인기에 애정관계와 직장관계 내에서 나타나고 있다(Crick et al., 1999). 관계적 공격성에서 '관계'는 해를 입히는 수단으로서 사용되는데 악의적 소문, 거짓말, 가십이나 비밀을 퍼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조용한 대응), 활동이나 그룹상호작용으로부터 한 사람을 배제 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Crick & Grotpeter, 1995). 관계적 공격성은 표현방법이 개인적인 정보를 얘기하겠다고 협박하는 식의 직접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식의 간접적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표현방법에 상관없이 관계나 소속감을 손상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관계적 공격성 연구는 주로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최지영, 배라영, 2014). 이는 성인이 될수록 학습의 영향으로 타인을 공격하는 행동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임을 인지하기 때문에 공격행동이 줄어드는 이유도 있겠지만, 학교라는 집단생활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공격성의 경우 측정되기 어려운 이유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계적 공격성과 아동・청소년의 인지, 정서, 사회성 등의 개인적 특성(한영경, 김은정, 2011)이나 또래관계, 가족관계 등의 환경적 특성(변은실, 이주영, 2016)과 관련되어 연구되었고, 소수의 대학생 연구에서 관계적 공격성과 자기애, 수치심 등의 자아특성(노우빈, 홍혜영, 2016; 임정우, 홍혜영, 2016)과 사이코패스 성향(이지후, 2015) 연구가 이루어졌다. 반면 외국의 연구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학생 이상 성인의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관계적 공격성은 우울, 불안, 알코올, 약물사용(Bagner, Storch, & Preston, 2007; Dahlen, Czar, Prather, & Dyess, 2013; Goldstein, Chesir-Teran, & McFaul, 2008)의 심리사회적 부적응과 경계선 성격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Ostrov & Houston, 2008)등 정신장애와도 관련되어 더욱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 시기는 발달단계상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단계로서 '성인도래기(Emerging Adulthood)' (주경필, 2015; Arnett, 2000)'라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친구와 애정관계에서의 질은 그들의 정체성 발달과 성인기의 필수적인 규범성취와 관련되며(Barry et al., 2009), 이 때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정, 사랑 등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고립감을 가지게 될 수 있다(Erikson, 1968). 또한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의 의존과 보호에서 벗어나고 확대된 인간관계를 갖게 되면서 취약한 시기가 될 수 있는데 높은 비율의 정신병리가 이 시기에 발생되고(Stallman, 2010), 한 해에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이 다른 성인이나 일반적인 인구보다 더 많다(Kessler, Berglund, Demler, Jin, Merikangas, & Walters, 2005)는 점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동·청소년기에는 친구관계의 우정을 통해 도덕적 가치판단과 가치를 형성하고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기 때문에 친구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그 시기를 벗어나게 되면 친구관계 뿐만

www.kci.go.kr

아니라 애정관계를 통해 밀접한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애정관계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공격성은 이후 물리적 공격성을 발달시키기 때문에(Jackson, 1999; White, Smith, Koss, & Figueredo, 2000) 성인도래기 이후 연구는 친구관계 뿐만 아니라 애정관계를 포함하여 연구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외 친구관계와 애정관계에서 나타나는 관계적 공격성 연구를 살펴보면, 친구관계에서는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경우 자기중심성, 또래거부(Werner & Crick, 1999), 시샘, 질투, 분노(강다겸, 장재홍, 2013; 이희경, 박미란, 이지연, 2013), 우울, 불안, 고독, 약물사용(Storch, Bagner, Geffken, & Baumeister, 2004)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정관계에서는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경우 우울, 불안, 고독, 약물사용(Bagner et al., 2007; Goldstein, 2011; Goldstein et al., 2008)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동성, 반사회적 행동이 높은 경우 친구관계와 애정관계에서 모두 관계적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Czar, Dahlen, Bullock, & Nicholson, 2011). 우리나라의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친구관계에 대해서만 다루어졌고 소수의 대학생 국내연구(김현아, 장혜인, 2016; 노우빈, 홍혜영, 2016; 이지후, 2015; 임정우, 홍혜영, 2016)에서도 친구관계에서만 관계적 공격성이 다루어졌다. 반면, 외국연구(Bagner et al., 2007; Czar et al., 2011; Dahlen et al., 2013; Goldstein et al., 2008; Gros, Gross, & Simms, 2010; Linder, Crick, & Collins, 2002; Ostrov & Houston, 2008; Storch et al., 2004; Werner & Crick, 1999)는 친구관계와 애정관계가 구분되어 연구되었고, 친구관계에서든 애정관계에서든 연구결과의 대부분이 우울, 불안 등의 심리사회적응 문제 및 적응의 어려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기의 경우 연령대가 넓게 분포되어 있고 직업별로 상이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성인의 관계적 공격성 연구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척도타당화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힘들다. 따라서 성인연구에 대한 기초로써 '성인도래기'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관계적 공격성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공격적이라는 주장(Maccoby & Jacklin, 1974; Olweus, Mattson, Schalling, & Low, 1980; Parke & Slaby, 1983; Ruble & Martin, 1998)에 대해 공격성이 여성보다 남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물리적, 언어적 형태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안하며 대두되었다. 관계에 초점을 맞춘 관계적 공격성은 여성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공격성이라는 점이 부각되며(Crick & Grotpeter, 1995) 공격성의 성차의 관점에서 연구가 확대되어 진행되어 왔다. 관계적 공격성의 성차에 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유·아동기, 청소년기에서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관계적 공격성이 높았지만(Crick & Grotpeter, 1995; Little, Rhemtulla, Gibson, & Schoemann, 2013; Ostrov & Crick, 2007) 성인으로 갈수록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성차가 줄어듦을 알 수 있다(Loudin, Loukas, & Robinson, 2003). 하지만 연령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관계적 공격성이 줄어드는 것과는 별도로, 하위요인 중 애정적 관계적 공격성은 대학생과 성인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oldstein, 2011; Murray-Close, Ostrov, Nelson, Crick, & Coccaro, 2010).

본 연구에 앞서 관계적 공격성을 타당화한 외국연구(Murray-Close et al., 2010)를 살펴보면, 성인의 관계적 공격성의 측정에서 중요한 고

www.kci.go.kr

려사항은 공격적 행동의 기능임을 강조하면서 좀 더 충동적이고 인지된 위협에 대응하여 적개심, 분노나 충동적 공격성이 나타나는 공격성(예를 들면 반응적 공격성이나 충동적 공격성)으로부터 계획되고 목표 지향적 목적을 가진 공격성(예를 들면 주도적 공격성이나 계획된 공격성)을 구분하였다. 또한 애정관계는 청소년기에 발생하고 성인기에 두드러지게 증가하기 때문에 애정관계의 맥락에서 관계적 공격성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Proactive Relational Aggression)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친구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처럼 관계 안에서 공격적 행동을 포함하여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하고 실행한다.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Reactive Relational Aggression)은 자신이 어떤 모임에 초대받지 못했을 때 미래에 그 사람을 배제시키는 것처럼 타인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받아들이고 강렬한 분노의 감정에 의해 촉발된다. 애정적 관계적 공격성(Romantic Relational Aggression)은 애정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적 공격성으로, 애인에게 화가 났을 때 애인이 질투심을 느끼도록 행동하거나, 애인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헤어지겠다고 협박하는 등 상대방을 조종하고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관계적 공격성 척도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척도는 Marsee, Kimonis와 Frick(2004)의 PCS(Peer Conflict Scale)척도와 Crick과 Grotpeter(1995)의 PNI(Peer Nomination Instrument)척도이다. PCS척도는 공격성을 기능에 따라 주도적 공격성과 반응적 공격성으로, 형태에 따라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여 주도-외현적 공격성, 주도-관계적 공격성, 반응-외현적 공격성, 반응-관계적 공격성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이홍, 김은정, 2012; 전주람, 2012; 하문선, 김지현, 2013; 한영경, 김은정, 2011). PCS척도는 형태와 기능의 두 차원에서 관계적 공격성을 연구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관계적 공격성의 양상을 알 수 있으나 척도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학교 내에서 또래 간의 관계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PNI척도는 학생이 반 친구들을 지명하도록 하여 외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 친사회성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일반적으로 자기보고식 척도의 경우 자신을 솔직하게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PNI척도와 같이 타인이 평가하는 경우, 측정의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일정기간 함께 생활하는 집단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관계적 공격성의 하위요인에 대해서는 살펴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가령 타인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인식해서 공격성이 나타나는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의 경우는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의도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타인이 평가하기가 힘들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으나 외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소수의 관계적 공격성 연구에서 YASB (Young Adult Social Behavior Scale; Crothers, Schreiber, & Field, 2009)척도가 사용되었다. YASB척도는 후기 청소년과 대학생에게 적합하도록 만들어졌고 세부적인 하위척도는 사회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 대인간 성숙으로 이루어져 포괄적인 형태의 대인관계를 살펴볼 수 있으나 관계적 공격성이 단일구조로 되어 있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탐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수의 연구(김현아, 장혜인, 2016;

www.kci.go.kr

이지후, 2015)에서 사용되었으나 외국의 경우 대학생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Bailey & Ostrov, 2008; Czar et al., 2011; Dahlen et al., 2013; Linder et al., 2002; Ostrov & Houston, 2008)에서 사용된 척도는 Morales와 Crick(1998)의 SRASBM(Self-Report of Aggression and Social Behavior Measure)척도이다. SRASBM척도는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 16문항, 관계적 피해(Relational Victimization) 9문항, 물리적 공격성(Physical Aggression) 6문항, 물리적 피해(Physical Victimization) 6문항, 배타성(Exclusivity) 8문항,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 11문항의 총 5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Morales와 Crick(1998)이 개발한 SRASBM는 공식 출판되지는 않았고, Linder 등(2002)의 연구에서 SRASBM의 관계적 공격성 문항 중에서 애정적 관계적 공격성과 애정적 관계적 피해 문항이 처음 출판되었다. 이후 관계적 공격성이 친구관계와 애정관계로 나누어 각각 연구되다가 Murray-Close 등(2010)의 연구에서 주도적, 반응적, 애정적 3요인의 관계적 공격성 척도가 타당화 되었다. 타당화 과정을 거치면서 7점 척도에서 5점 척도로 평정체계가 수정되었고, 문항도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이 각각 한 문항씩 삭제되어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4문항,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5문항, 애정적 관계적 공격성 5문항의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는 전체 관계적 공격성 .83,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69,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72, 애정적 관계적 공격성 .66이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전체 관계적 공격성 .66,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55,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65, 애정적 관계적 공격성 .68이었다. 이 연구에서 관계적 공격성은 분노, 적대감, 충동성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많은 연구(Bailey & Ostrov, 2008; Czar et al., 2011; Dahlen et al., 2013; Goldstein, 2011; Linder et al., 2002; Loudin et al., 2003; Werner & Crick, 1999)를 통해 성인의 관계적 공격성이 주도적・반응적・애정적 관계적 공격성의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 연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Morales와 Crick(1998)의 관계적 공격성 척도가 차원을 나누지 않고 단일척도로 사용되거나(김현아, 장혜인, 2016), 애정관계를 제외하고 친구관계만 탐색되기도 하고(이지후, 2015) 청소년 대상의 PCS척도가 성인에게 사용되기도 하였다(노우빈, 홍혜영, 2016; 임정우, 홍혜영, 2016). 관계적 공격성 척도가 친구관계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애정적 관계적 공격성을 제외하고 단일요인으로 사용될 수 있겠지만 Murray-Close 등(2010)은 많은 연구에서 공격성을 주도적, 반응적으로 나누어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소년기 이후에는 애정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독립된 차원으로 나누어 측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의 관계적 공격성 연구에 적합하도록 관계적 공격성을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 연구하고 외국연구에서도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Morales와 Crick(1998)이 개발한 관계적 공격성 척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하고 타당화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적 공격성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문항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 있는 변인인 공격성, 분노, 우울, 자아존중감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공인타당도를 검증한 후 남녀 간의

www.kci.go.kr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관계적 공격성 척도의 타당화를 위해 2016년 5월부터 6월까지 서울, 경기, 대전, 충남, 대구, 광주의 6개 대도시의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시간은 10분 정도 소요되었고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총 425명이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친구관계 뿐만 아니라 애인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관계적 공격성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의 적절성을 위하여 425명 중 성인도래기에 해당되는 만 18세에서 만 25세까지, 현재 연애를 하고 있거나 연애경험이 있는 대학생 313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인원 구성은 남성 113명(36.1%), 여성 200명(63.9%)으로 평균연령은 만 20.4세(SD=1.95)이었다. 학년 구성을 살펴보면, 1학년 100명(32.0%), 2학년 61명(19.5%), 3학년 88명(28.1%), 4학년 64명(20.4%)이었다. 학교 소재지를 살펴보면, 서울 55명(17.6%), 경기 39명(12.5%), 대전 106명(33.9%), 충남 39명(12.5%), 대구 25명(8%), 광주 49명(15.7%) 이었다.

연구절차

관계적 공격성 척도의 타당화를 위해 Crick이 재직했었던 미네소타 대학 아동발달연구소의 관리자 Peter Ralston에게 관계적 공격성 척도 타당화에 대한 연구진행 허가를 받았다. 상담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본 연구자와 현재 영어교사이면서 상담학 석사학위를 받은 1인, 미국에서 교육심리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 1인의 합의를 통해 초벌 번역본을 완성하였다. 이후 영어권 국가와 한국의 두 문화에 익숙한 이중 언어사용자인 교수 1인이 본 척도의 의미가 번역본에서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의미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수정하였다. 이 후 상담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2인의 검토를 통해 번역본을 완성하였다. 최종적으로 교육학 전공교수 1인의 검토를 받았으며 대학생 3인의 이해도와 소요시간을 검토하였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이 없었고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10분 이내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는 교육학, 사회복지학, 교양교과목 수업 전후에 질문지를 배포하여 이루어졌으며, 연구자는 조사자에게 미리 연구주제와 척도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검사 시 주의사항과 소요시간을 전달하였다. 설문을 원하지 않는 경우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공지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하는 경우 설문조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측정도구

관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 척도는 Morales와 Crick(1998)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공격성 및 사회행동척도(Self-Report of Aggression and Social Behavior Measure; SRASBM) 중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16문항이다. 이 척도는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5문항),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6문항), 애정적 관계적 공격성(5문항)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응답

www.kci.go.kr

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Murray-Close 등(2010)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전체 관계적 공격성 .83,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69,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72, 애정적 관계적 공격성 .66이었다.

공격성

공격성 척도는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한 AQ(Aggression Questionnaire)를 서수균과 권석만(2002)이 타당화한 것으로 총 27문항이다. 이 척도는 신체적 공격성(9문항), 언어적 공격성(5문항), 분노감(5문항), 적대감(8문항)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수균과 권석만(2002)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전체 공격성 .86, 신체적 공격성 .74, 언어적 공격성 .73, 분노감 .67, 적대감 .76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전체 공격성 .89, 신체적 공격성 .79, 언어적 공격성 .71, 분노감 .74, 적대감 .75로 나타났다.

특성분노

특성분노 척도는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 (1988)이 개발한 STAXI(State 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를 전겸구, 한덕웅, 이장호와 Spielberger(1997)가 한국판으로 개발한 것이다. STAXI-K(State 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Korean Version)는 상태분노(10문항), 특성분노(10문항), 분노-억제(8문항), 분노-표출(8문항), 분노-통제(8문항)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분노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특성분노 10문항만이 사용되었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특성분노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겸구 등(1997)의 연구에서 특성분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3이었다. 본 연구에서 특성분노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다.

우울

우울척도는 Beck, Ward, Mendelson, Mock과 Erbaugh(1967)이 개발한 BDI(Beck Depression Inventory)를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것이다. 이 척도는 정서적(6문항), 인지적(5문항), 동기적(5문항), 생리적(5문항) 증상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증상의 단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영호와 송종용(1991)의 연구에서 우울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4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전체 우울 .88, 정서적 증상 .73, 인지적 증상 .71, 동기적 증상 .75, 생리적 증상 .54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SES(Self-Esteem Scale)척도를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것이다. 자아존중감은 전반적인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인 긍정적 자아존중감(5문항),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인 부정적 자아존중감(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역으로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www.kci.go.kr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훈진과 원호택(1995)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9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전체 자아존중감 .90, 긍정적 자아존중감 .86, 부정적 자아존중감 .84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설문을 통해 얻은 자료에 대해 SPSS18.0과 AMOS20.0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문항의 양호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문항-총점간 상관계수, 문항제거 시 신뢰도, 전체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공통요인분석을 하였는데 반복주축분해법(Iterated Principal Axis Factoring)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고 회전방법은 사각회전(Direct Oblimin)방법을 사용하였다.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지수를 사용하였고, 적합한 요인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지수를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정된 모형으로 공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공격성 척도, 특성-분노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 후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10문항의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기에 앞서 문항 양호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문항-총점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1과 같이 본 연구의 문항의 평균은 1.18에서 2.60, 표준편차는 .50에서 1.26으로 분포되어 있다. 평균값이 비교적 낮은 문항이 있었으나 문항-총점 상관계수가 .35에서 .69로서 문항의 변별도를 잘 나타내고 있어 삭제되지 않았다. 전체 신뢰도는 .86으로 높은 편이었고, 문항제거 시 신뢰도 값이 전체 신뢰도 보다 높게 나타난 문항이 없어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 대상 문항수가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문항을 선정하는 경우, 문항-총점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면 그 문항은 선정해도 좋은 문항이라고 본다(Ebel, 1965).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문항-총점 상관계수가 .30이상이면 양호하다고 보기 때문에(김남걸, 2001) 이 기준에 따라 16문항을 모두 요인분석에 사용하였다.

관계적 공격성 척도의 요인구조를 탐색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 KMO(Kaiser-Meyer-Olkin Measure)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통계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본의 적절성을 측정하는 KMO의 값이 .86으로 1에 가까울수록 요인분석에 적합하다는 기준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통계값이 $p<.001$로 p값이 .05보다 작으면 적합하다(Tabachnick & Fidell, 1989)는 기준에 합치하여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이 나타났다. 요인추출방법은 측정변수들의 공통요인을 추출해 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통요인분석 모형인 반복주축분해법(Iterated Principal

www.kci.go.kr

표 1. 문항분석

	평균	표준편차	문항-총점 상관계수	문항제거 시 *a*계수	전체 *a*계수
관계적 공격성 01	1.54	.92	.41	.85	.86
관계적 공격성 02	1.39	.67	.38	.85	
관계적 공격성 03	1.89	.89	.49	.85	
관계적 공격성 04	1.46	.68	.57	.85	
관계적 공격성 05	2.33	1.06	.45	.85	
관계적 공격성 06	2.01	.99	.57	.84	
관계적 공격성 07	1.76	.87	.57	.84	
관계적 공격성 08	1.19	.50	.35	.85	
관계적 공격성 09	1.70	.92	.61	.84	
관계적 공격성 10	1.24	.61	.35	.85	
관계적 공격성 11	1.18	.54	.36	.85	
관계적 공격성 12	1.38	.72	.47	.85	
관계적 공격성 13	2.60	1.26	.46	.85	
관계적 공격성 14	2.42	1.21	.56	.85	
관계적 공격성 15	1.33	.71	.52	.85	
관계적 공격성 16	1.62	.90	.69	.84	

주. *N*=313

Axis Factoring)을 사용하였다. 요인의 해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축을 회전하였는데 요인 간의 상관이 크기 때문에 상관을 허용한 채 회전하는 사각회전 중 직접 오블리민(Direct Oblimin) 방법을 사용하였다. 공통분의 추정치는 다중상관제곱치(SMC)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요인과 문항선택기준은 선행연구에서의 요인구조, 고유치가 1.0이상임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이론에서 예측하는 바도 3요인으로 되어 있고 외국의 관계적 공격성 타당화 연구에서도 3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스크리 검사(scree test) 결과와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여 요인의 수를 3개로 지정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부하량은 .3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요인부하량이 .30 이상인 경우 측정변수와 요인의 관련성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탁진국, 2007) 그 기준을 너무 경직되게 기계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으며 .30에서 약간 모자라도 맥락에 따라서는 해석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이순묵, 2000). 따라서,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16번 문항 “나는 어떤 것에 대해 나의 방식대로 따를 때까지,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적이 있다”는 요인부하량이 .30

www.kci.go.kr

표 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공통성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6	.73	-.06	.08	.56
	7	.71	-00	-.01	.50
	3	.51	.12	-.04	.32
	9	.32	.23	.22	.39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12	-.06	.79	-.02	.55
	10	.20	.37	.01	.22
	16	.14	.29	.12	.53
애정적 관계적 공격성	13	.18	-.15	.68	.57
	05	-.08	.06	.48	.26
	01	.24	.27	.39	.21
	설명변량	2.77	1.99	2.04	
	설명변량비율(%)	27.7	19.9	20.4	
	누적변량비율(%)	27.7	47.6	68.0	

주. N=313

이하이지만 연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삭제되지 않았다. 삭제된 6문항 중 2번 문항 “친구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들이 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하찮게 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와 8번 문항 “내가 친구에게 화가 났을 때, 나는 친구의 애인에게 추파를 던진 적이 있다”는 각각 공통성이 .18, .20으로 낮게 나타나 삭제되었다. 11번 문항 “나는 애인에게 화가 나서 다른 사람과 바람을 핀 적이 있다”와 15번 문항 “만약 내 애인이 나를 화나게 하면, 나는 내 애인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추파를 던질 것이다”는 문항제거 시 Cronbach's α가 더 높게 나타나 삭제되었다. 4번 문항 “나는 친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얻을 때까지 친구들에게 차갑게 대하거나 무관심하게 행동한다”와 14문항 “누군가 내 감정을 상하게 할 때, 나는 그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는 원척도에서와 다른 하위요인으로 묶여 이론적 근거에 부합되지 않아 삭제되었다.

여러 개의 하위검사로 구성되는 경우 한 개의 하위검사 당 3개부터 15개의 문항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기에(Loewenthal, 1996) 본 연구에서는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3문항,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4문항, 애정적 관계적 공격성 3문항으로 하위요인을 구성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10문항의 척도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과 같이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3요인 모형은

www.kci.go.kr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	χ^2	*df*	CMIN/DF	TLI	CFI	RMSEA	AIC
1요인	108.87	36	3.02	.87	.90	.08	166.87
3요인	67.21	32	2.10	.93	.95	.06	133.21

주. N=313

χ^2(32, N=313)=67.2, p<.001, TLI=.93, CFI=.95, RMSEA=.06으로 나타났다. χ^2검정은 표본수에 민감하여 표본크기에 따라 모형의 기각여부가 결정되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김재철, 2008;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 적합도지수를 이용하여 모형평가를 하였다.

모형 적합도의 경우, RMSEA값은 .06이하면 매우 좋은 적합도로 해석하고(Hu & Bentler, 1999), TLI값과 CFI값의 경우 .90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으며(Bentler, 1990; Tucker & Lewis, 1973) CMIN/DF값이 3이하면 전반적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김계수, 2010). 본 연구에서 TLI값은 .93, CFI값은 .95, RMSEA 값은 .06, CMIN/DF 값은 2.10으로 나타나 적합도가 양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10문항을 요인을 나누지 않고 단일척도로 모형을 구성한 모형과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애정적 관계적 공격성의 3요인으로 나눈 모형을 비교하여 3요인 구조의 적절성을 살펴보았다. 모형 비교시 AIC값은 작을수록 좋은 모형이라 할 수 있는데 1요인으로 구성하였을 때 AIC=166.87이고, 3요인으로 구성하였을 때 AIC=133.21로 나타나 3요인으로 모형을 구성하였을 때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1요인 모형과 3요인 모형의 χ^2차이검증 결과 ($\triangle\chi^2$(4, N=313)=41.67, p<.001) 두 모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고, 적합도지수인 TLI값, CFI값, RMSEA값이 모두 1요인 모형에 비해 3요인 모형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3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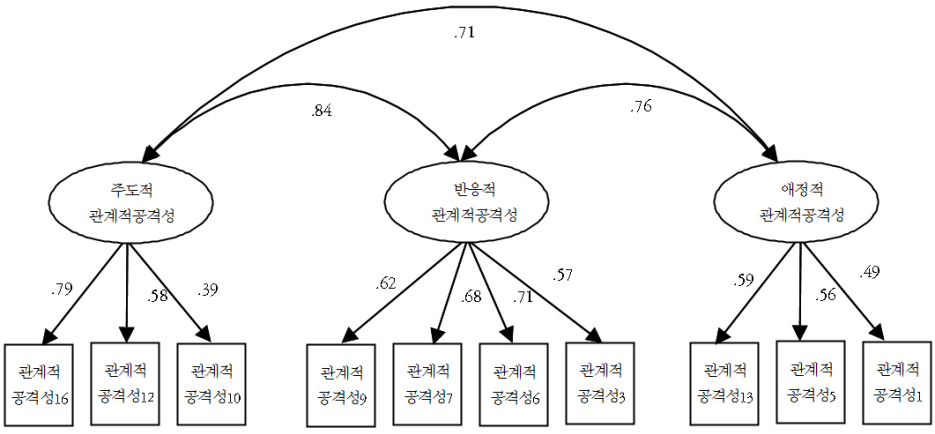

그림 1.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요인간 상관

www.kci.go.kr

인 모형을 채택하였다.

그림 1과 같이 요인간 상관을 살펴보면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과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은 .84의 상관,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과 애정적 관계적 공격성은 .76의 상관,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과 애정적 관계적 공격성은 .71의 상관을 보여 각 요인간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공인타당도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추출된 관계적 공격성 척도가 타당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공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공격성, 특성분노, 우울,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여 관계적 공격성 척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의 선정이유는 먼저, 관계적 공격성은 공격성을 측정하고 있고 선행연구에서도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경우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하문선, 김지현, 2013; Murray-Close et al., 2010) 공격성 척도를 선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특성분노 척도를 선정하였는데 선행연구에서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경우 특성분노가 높게 나타났고(이홍, 김은정, 2012; Dahlen et al., 2013) 공격성의 성격적 특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았고(노우빈, 홍혜영, 2016; Weber & Robinson Kurpius, 2011), 우울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신현숙, 2013; Werner & Crick, 1999) 이를 관련변인으로 선정하였다.

표 4와 같이 공격성은 관계적 공격성의 하위요인 중 주도적・반응적・애정적 관계적 공격성과 정적 상관(r=.49, r=.52, r=.45,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척도에 비해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에 대한 공격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성분노는 관계적 공격성의 하위요인 중 주도적・반응적・애정적 관계적 공격성과 정적 상관(r=.31, r=.43, r=.37,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분노는 지속적이고 안정된 형태로 나타나는 성격적 경향성으로(Spielberger, Krasner, & Solomon, 1988)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경우 사건발생에 따른 일시적인 분노가 아니라 특성적인 분노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우울은 관계적 공격성의 하위요인 중 주도적・반응적・애정적 관계적 공격성과 정적 상관(r=.15, p<.01, r=.14, p<.01, r=.30, p<.05)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부정적 사건을 경험하는 과정에 개입된 인지적 오류가 부정적 자동사고를 발생하게 하고 그 결과 우울증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Beck et al., 1967)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경

표 4. 공인타당도 결과

요인	공격성	특성분노	우울	자아존중감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49**	.31**	.15**	-.13*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52**	.43**	.14*	-.18**
애정적 관계적 공격성	.45**	.37**	.30**	-.23**
전체 관계적 공격성	.60**	.46**	.24**	-.22**

주. *p<.05, **p<.01, N=313

www.kci.go.kr

우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슬픈 기분을 느끼는 우울수준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관계적 공격성의 하위요인 중 주도적 · 반응적 · 애정적 관계적 공격성과 부적 상관(r=-.13, p<.05, r=-.18, r=-.23,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경우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높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결과는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경우 공격성, 특성분노, 우울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선행연구결과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척도의 집단간 차이

관계적 공격성이 남녀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선행연구(Goldstein, 2011; Goldstein et al., 2008; Murray-Close et al., 2010)는 남녀 간에 관계적 공격성이 차이가 있고 애정적 관계적 공격성에서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집단 간 동등성을 검증하였으며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을 순차적으로 살펴보았다. 표 5와 같이 형태동일성은 비교하고자하는 집단의 요인구조가 동일한지 살펴보는 것으로 TLI값이 .90, CFI값이 .93, RMSEA값이 .05로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3요인 모형의 형태동일성이 검증되었다.

다음은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형태동일성이 검증된 모형과 요인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측정동일성 모형 사이에 χ^2값과 df값을 비교하였다. 측정동일성 모형은 p<.05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모형으로 보는데, 검증결과 χ^2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triangle\chi^2(7,\ N=313)=14.21,\ p=.05$). 그러나 χ^2검증은 사례 수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모형의 간명도를 고려하는 RMSEA값과 TLI값으로 비교하여 이 값이 유사한 경우 동일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홍세희, 황매향, 이은설, 2005). 본 연구에서 TLI값과 CFI값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동일성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았다.

다음 단계로 절편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측정동일성 모형과 측정변수의 절편까지 동일화 제약을 가한 절편동일성 모형 사이에 χ^2값과 df값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χ^2값 차

표 5. 동일성 검증에 대한 합치도 지수

모형	χ^2	df	TLI	CFI	RMSEA	모형비교	
						$\triangle df$	$\triangle\chi^2$
형태동일성	114.20	64	.90	.93	.05		
측정동일성	128.41	71	.90	.92	.05	7	14.21
측정 및 절편동일성	144.28	78	.90	.91	.05	7	15.87
측정 및 부분절편동일성	130.41	74	.90	.92	.05	3	2.00
측정, 부분절편 및 요인분산동일성	136.34	76	.90	.92	.05	2	5.93

www.kci.go.kr

이가 유의하게 나타났고($\Delta\chi^2$(7, N=313)=15.87, p=.03) TLI값, CFI값, RMSEA값이 나빠져 두 모형이 다른 모형임이 나타나 기각되었다. 그러나 단위동일성이 기각될 때 수정지수(MI ≥5)를 고려하여 측정변수의 제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Marsh & Hocevar, 1985) 수정지수(MI)를 검토하여 수정하였다. 그 결과 χ^2값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고($\Delta\chi^2$(3, N=313)=2.00, p=.57) TLI값과 RMSEA값이 좋아져 부분절편동일성이 성립되었다.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부분절편동일성이 확보되어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남자대학생 집단의 잠재평균을 0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여자대학생 집단의 잠재평균을 추정하였다. 표 6과 같이 요인별 남녀 대학생 간 잠재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에 비해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애정적 관계적 공격성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5와 같이 요인분산동일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Delta\chi^2$(2, N=313)=5.93, p=.05) 효과크기 값은 공통표준편차를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효과크기는 .2이하일 때 작은 값, .5는 중간 값, .8보다 클 때 큰 값으로 보는데(Cohen, 1992) 본 연구에서는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에서 효과크기가 .34로 중간의 효과크기를 보였고, 애정적 관계적 공격성에서 효과크기가 3.35로 매우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따라서 애정적 관계적 공격성에서 남녀 차이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6. 요인별 남녀 대학생 간 잠재평균 차이분석

요인	남	여	효과크기(*d*)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00	.09	.02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00	.16*	.34
애정적 관계적 공격성	.00	.32***	3.35

주. *p<.05, ***p<.001, N=313

신뢰도 검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과 타당

표 7.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요인	문항내용	신뢰도	전체 신뢰도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3. 내가 모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활동에 초대받지 못하면, 나도 앞으로 활동을 할 때 그 사람들을 제외시킬 것이다.	.74	.80
	6. 나는 누군가에게 화가 나거나 질투가 났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부정적인 정보를 전달해서 그 사람의 평판을 손상 시키려고 한 적이 있다.		
	7.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을 하면, 나는 그 사람의 친구들 앞에서 그 사람을 난처하게 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 한다.		
	9. 내가 어떤 사람에게 화가 날 때, 나는 그 사람이 그룹 활동(예. 함께 영화보러 가거나 술집에 가는 것)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www.kci.go.kr

표 7.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속)

요인	문항내용	신뢰도	전체 신뢰도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10. 나는 내 친구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르게 하기 위해, 친구들의 사적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다.	.62	80
	12. 나는 악의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 소문을 퍼트린 적이 있다.		
	16. 나는 어떤 것에 대해 나의 방식대로 따를 때까지,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적이 있다.		
애정적 관계적 공격성	1. 나는 애인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 애인과 헤어지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다.	.55	
	5. 나는 애인에게 화가 날 때, 애인이 질투심을 느끼도록 행동하려 한다.		
	13. 나는 어떤 식으로든 애인이 내 감정을 상하게 할 때, 애인에게 침묵으로 대응한다.		

주. N=313

도 검증을 실시하여 추출된 10문항의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표 7과 같이 최종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80로 나타났고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의 신뢰도는 .74,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의 신뢰도는 .62, 애정적 관계적 공격성의 신뢰도는 .55로 나타났다.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과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애정적 관계적 공격성의 신뢰도는 다소 낮은 편이었다.

논 의

본 연구는 Morales와 Crick(1998)이 개발한 관계적 공격성 척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타당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3요인 구조를 확인하였고, 공격성, 분노, 우울 및 자아존중감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공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관계적 공격성에 남녀 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시사점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척도는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3문항,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4문항, 애정적 관계적 공격성 3문항의 10문항으로 총 변량의 68.0%가 설명되었다. 원척도(Morales & Crick, 1998)나 외국의 타당화 연구(Murray-Close et al., 2010)의 문항수가 각각 16문항, 14문항인 것에 비해 본 연구의 척도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문항수가 축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문화적 차이의 관점으로 볼 수 있으며 자기와 타인, 그 둘의 관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동양문화권은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고 서양문화권은 독립성을 강조하여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Markus & Kitayama, 1991). 또한 한국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는 개인주의 문화권에 비해 갈등을 회피

www.kci.go.kr

하고 사회적 조화와 타인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Xu, Farver, Schwartz, & Chang, 2004).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보다는 타인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손상을 주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해 문항의 평균점수가 낮아져 요인분석 시 문항이 탈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탈락된 애정적 관계적 공격성의 두 문항을 살펴보면 “나는 애인에게 화가 나서 다른 사람과 바람을 핀 적이 있다.”와 “만약 내 애인이 나를 화나게 하면, 나는 내 애인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추파를 던질 것이다.”와 같은 문항의 경우 도덕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실재로 그런 일이 있다하더라도 쉽게 체크하기가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죄책감은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위반된 행동을 가정하였을 때에 예상되는 결과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느낄 수도 있는 것으로 내재화된 양심에 근거하여 발생되는 감정이다(Baumeister, 1991). 실재가 아닌 가상으로 외도상황을 제시하고 설문에 답하게 하였을 때 자신의 외도에 대해 남녀 모두 도덕적 정서의 일종인 죄책감을 높게 지각하기도 하기 때문에(고원경, 양동옥, 윤가현, 2010) 본 연구에서 외도를 연상케 하는 부정적 문항에 대해 도덕적 정서가 개입됨으로써 대학생들이 솔직한 대답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죄책감은 대표적인 도덕적 정서로 공격성과의 관계(이수경, 오인수, 2012; 한세영, 2007)에서는 공격성에 죄책감이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있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어 추후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격성과 도덕적 정서와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성인에 대한 관계적 공격성 연구를 위한 기초연구로써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추후 관계적 공격성 연구는 대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관계적 공격성(Hickman, 2006)이나 부부관계에 있는 성인에게 나타나는 관계적 공격성(Carroll et al., 2010)과 같이 직업군별, 나이대별로 대학생과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관계적 공격성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원척도(Morales & Crick, 1998)나 외국의 타당화 척도(Murray-Close et al., 2010)에서처럼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애정적 관계적 공격성의 3요인 구조가 본 연구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척도와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관계적 공격성 척도는 공격성 척도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Murray-Close 등(2010)의 연구, Ostrov와 Houston(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 척도가 공격성을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계적 공격성 척도와 특성분노 척도와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Dahlen 등(2013)의 연구, Murray-Close 등(201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특히 하위요인 중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이 특성분노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이 타인의 행동에 대한 분노반응으로서 타인의 관계를 공격하고 손상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관계적 공격성 척도와 우울 척도와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Goldstein 등(2008)의 연구, Werner와 Crick(1999)의 연구

www.kci.go.kr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과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에 비해 애정적 관계적 공격성이 우울과 상관이 높게 나타났는데 애정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을 높게 보이는 경우 우울이 높다는 연구(Bagner et al., 2007)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연구 중 애정확인 후 갈등을 일으키는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애인에게 집착하거나 갈등해결에서 공격적 행동을 사용하는 등 관계방해 행동을 많이 하고(장재홍, 2006), 부정적 이성관계 태도가 대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준다(이주연, 하상희, 2012)는 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애정관계는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양자(dyad) 관계로 서로에게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관계적 공격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관계적 공격성 척도와 자아존중감 척도와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서로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Donnellan, Trzesniewski, Robins, Moffitt와 Caspi(2005)의 연구, Weber와 Robinson Kurpius(201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특히 애정적 관계적 공격성이 낮은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한 낮은 자아존중감은 타인에 대한 공격적 행동으로 나타나고 애정관계와 같이 긴밀한 관계에서 의사소통이나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 연구(박기환, 서민재, 2013; 박상화, 하창순, 2016)와 일관된 결과이다.

셋째, 척도의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남녀 간 관계적 공격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 보다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과 애정적 관계적 공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애정적 관계적 공격성에서 효과크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계적 공격성이 타인과의 긴밀한 연결이나 밀접한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여성에게 주로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결과(Crick & Grotpeter, 1995; Nelson, Springer, Nelson, & Bean, 2008)와 더불어 아동·청소년기에는 친구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이 나타나지만 성인기에는 애정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Goldstein, 2011)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애정관계는 부모관계 및 친구관계와 더불어 개인의 발달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대인관계 맥락이다(Collins & Sroufe, 1999). 특히 애정관계를 통한 친밀감 형성은 대학생 시기의 주요 발달과제이기 때문에(Erikson, 1968), 이 발달과제를 완성하게 되면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해 갈 수 있으며 이후 결혼생활에서도 안정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애정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경우 이후 파트너의 폭력행위와 피해를 예견하기 때문에(Wright & Benson, 2010) 추후에 친구관계와 구분되는 애정관계에서 일어나는 관계적 공격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가 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공격성 척도 타당화를 통해 그동안 청소년에 국한되어 있던 국내 관계적 공격성 연구를 성인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애정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애정관계 내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친구관계 뿐만 아니라 애정관계내의 친밀감은 대학생의 정체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애정관계 내의 관계적 공격성 연구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대인관계에서 어

www.kci.go.kr

려움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을 상담할 때 상담자가 내담자의 대인관계 패턴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본 척도의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은지, 전반적으로 낮은지 또는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애정적 관계적 공격성의 하위요인별로 어떤 한 요인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내담자의 관계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친구관계에서 자신이 목적으로 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행동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타인의 반응을 적대적으로 해석하는데서 일어나는 것인지, 애정관계문제로 인한 것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담자는 척도 점수를 내담자의 공격성과 관련된 행동패턴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상담 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전체문항의 신뢰도는 .80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을 제외한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애정적 관계적 공격성의 신뢰도는 각각 .62, .55로 다소 낮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문항의 공통성이 높지 않은 경우는 더 많은 문항의 수가 요인과 관련되어야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때 요인 당 네 개 이상의 측정변수가 포함되는 것이 권장된다(Fabrigar, Wegener, MacCallum, & Strahan, 1999). 그러나 본 연구의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과 애정적 관계적 공격성의 문항 수는 각각 세 문항으로 이루어져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였고, 외국의 척도에서 문항을 추가하지 않고 적은 수의 문항을 그대로 번안하여 타당화 함으로써 문화적 차이가 반영되지 못하여 낮은 신뢰도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과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의 잠재변수 간 상관이 높은 것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외국의 타당화 연구(Murray-lose et al., 2010)에서도 세 잠재변수 간 상관이 높게 나타났고 우리나라의 청소년대상 관계적 공격성 타당화 연구(하문선, 김지현, 2013)에서도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과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의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애정적 관계적 공격성에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난 점은 친구관계에서 나타나는 관계적 공격성은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과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의 두 차원으로 구분되는데 반해 애정관계에서 나타나는 관계적 공격성은 두 차원으로 구성되지 않고 한 차원으로만 구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척도(Morales & Crick, 1998)나 외국의 타당화 척도(Murray-Close et al., 2010)에서도 애정관계에서의 관계적 공격성 문항은 친구관계에서와 같이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과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의 두 차원으로 구분되지 않고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애정적 관계적 공격성 연구는 좀 더 연구가 되어야하는 분야로서 추후 연구에서는 애정관계에서 나타나는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문항을 개발하여 타당화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의 척도 타당화 과정에서 같은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성개념에 한해서는 하나의 데이터로 타당화 검증이 가능하기도 하지만(우종필, 2012), 일반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은 요인구조를 추출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내적타당성을 검증하기 때문에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은 연구대상을 별도로 선정하여 이루어져야

www.kci.go.kr

한다(Allen & Yen, 2001). 따라서 이로 인해 타당화 과정 중 척도에 대한 신뢰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본 척도를 이용하는데 있어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추후 타당화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이 각기 다른 대상으로 분석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높은 수준의 친밀감은 관계적 공격성의 요인과 관련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애정관계를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만을 선별하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애정관계를 경험하지 않은 일반대학생의 경험은 이와 다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는 친구관계의 범위나 애정관계에서 경험하는 강도에서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점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타당성을 검증한 관계적 공격성 척도는 그동안 청소년기에 국한되어 있던 관계적 공격성의 연구를 대학생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제공하였으며 남녀 간에 관계적 공격성의 차이를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상담과정에서 우리나라 대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의 패턴을 파악하고, 적절한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진단도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다겸, 장재홍 (2013). 여중생의 시샘, 질투 및 분노가 또래관계에서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3), 449-470.

고원경, 양동옥, 윤가현 (2010). 외도에 대한 질투 및 죄책감에서의 성차: 진화심리학 vs. 사회문화 이론. 사회과학연구, 21(2), 163-181.

김계수 (2010).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 아카데미.

김남걸 (2001). Likert 척도 개발을 위한 문항선정 방법의 비교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재철 (2008).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최신실용통계학. 서울: 학지사.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김현아, 장혜인 (2016).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정서조절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자녀 애착의 매개된 조절효과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9(3), 253-275.

노우빈, 홍혜영 (2016).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분석. 통합치료연구, 7(2), 81-102.

박기환, 서민재 (2013). 전위 공격성과 심리적 안녕감, 자아존중감, 신체화 및 우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1), 163-181.

박상화, 하창순 (2016). 기혼자의 자아존중감,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과의 관계: 정서인식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7(6). 499-522.

변은실, 이주영 (2016). 정서적 학대가 아동의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4), 1125-1149.

www.kci.go.kr

서수균, 권석만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87-501.

신현숙 (2013). 남녀 청소년의 공격성 군집에 따른 우울, 자극추구성향, 정서조절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20(2), 191-215.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 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 아카데미.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98-113.

이수경, 오인수 (2012). 충동성, 공격성과 직접, 관계적 괴롭힘 가해의 관계에서 죄책감의 매개효과 분석. 상담학연구, 13(4), 2017-2032.

이순묵 (2000). 요인분석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이주연, 하상희 (2012). 부모 애착이 남녀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독립과 이성관계 태도의 매개 경로 분석. 상담학연구, 13(6), 2821-2837.

이지후 (2015). 사이코패스 성향과 공감능력 및 공격성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 홍, 김은정 (2012). 청소년의 공격성 하위유형에 따른 인지 및 정서 특성. 청소년학연구, 19(1), 227-250.

이훈진, 원호택 (1995). 자기개념과 편집증적 경향. 심리과학, 4(2), 15-29.

이희경, 박미란, 이지연 (2013). 초등여학생의 우정관계 질투정서와 관계적 공격성에서 정서조절능력을 애착의 조절효과. 아동교육, 22(3), 207-229.

임정우, 홈혜영 (2016).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역기능적 분노표현을 변인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4(1), 63-75.

장재홍 (2006). 이성교제의 경험, 애정관계 행동 및 성인 애착 차원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1),137-155.

전겸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 (1997). 한국판 STAXI 척도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60-78.

전주람 (2012). 남녀 아동의 자기통제력,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간 갈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주경필 (2015). 성인도래기(Emerging Adulthood)의 개념정립을 통한 국내 청년복지정책에 대한 소고. 청소년복지연구, 17(1), 189-213.

최지영, 배라영 (2014).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2000년~2013년. 인간발달연구, 21(1), 183-202.

탁진국 (2007). 심리검사 개발과 평가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하문선, 김지현 (2013). 한국 초기 청소년공격성척도(K-PCS) 타당화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4(1), 71-101.

한세영 (2007). 초기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와 공격성 - 죄책감, 수치심, 감정이입을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45(7), 17-33.

한영경, 김은정 (2011). 초기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 하위유형의 특성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4), 985-1002.

홍세희, 황매향, 이은설 (2005). 청소년용 여성진로방벽 척도의 잠재평균분석. 교육심리연구, 19(4), 1159-1177.

Allen, M. J., & Yen, W. M. (2001). *Introduction to measurement theory*. Long Grove: Waveland Press.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www.kci.go.kr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Bagner, D. M., Storch, E. A., & Preston, A. S. (2007). Romantic relational aggression: What about gender? *Journal of Family Violence, 22*(1), 19-24.

Bailey, C. A. & Ostrov, J. M. (2008). Differentiating forms and functions of aggression in emerging adults: Associations with hostile attribution biases and normative belief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6), 713-722.

Barry, C. M. N., Madsen, S. D., Nelson, L. J., Carroll, J. S., Badger, S., & Padilla-Walker, L. M. (2009). Friendship and romantic relationship qualities in emerging adulthood: differential associations with identity development and achieved adulthood criteria.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6*(4), 209-222.

Baumeister, R. F. (1991). *Meanings of life.* New York: Guilford Press.

Beck, A. T., Ward, C. H., Mendelson, M., Mock, J., & Erbaugh, J. (1967).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6), 561-571.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6.

Buss, A. H., & Perry, M.(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3), 452-459.

Carroll, J. S., Nelson, D. A., Yorgason, J. B., Harper, J. M., Ashton, R. H., & Jensen, A. C. (2010). Relational aggression in marriage. *Aggressive Behavior, 36*(5), 315-329.

Cohen, J. (1992). A power primer. *Psychological Bulletin, 112*(1), 155-159.

Collins, W. A., & Sroufe, L A. (1999). Capac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A developmental construction. In W. Furman, C. Feiring, & B. B. Brown (Eds.), *The development of romantic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pp.125-147).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3), 710-722.

Crick, N. R., Werner, N. E., Casas, J. F., O'Brien, K. M., Nelson. D. A., Grotpeter, J. K., & Markon, K. (1999). Childhood aggression and gender: A new look at an old problem. In D. Bernstein (Ed.), *Gender and Motivation* (pp. 75-141). Lincoln: Nebraska University Press.

Crothers, L. M., Schreiber, J. B., & Field, J. E. (2009). Development and measurement throug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young adult social behavior scale (YASB): An assessment of relational aggression in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27*(1), 17-28.

Czar, K. A., Dahlen, E. R., Bullock, E. E., & Nicholson, B. C. (2011). Psychopathic personality trairs in relational aggression among young adults. *Aggression Behavior*, *37*(2), 207-214.

Dahlen, E. R., Czar, K. A., Prather, E., & Dyess, C. (2013). Relational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54*(2), 140-154.

www.kci.go.kr

Donnellan, M. B., Trzesniewski, K. H., Robins, R. W., Moffitt, T. E., & Caspi, A. (2005). Low self-esteem is related to aggression, antisocial behavior, and delinquency. *Psychological Science, 16*(4), 328-335.

Ebel, R. L. (1965). *Measuring educational achieve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Fabrigar, L. R., Wegener, D. T., MacCallum, R. C., & Strahan, E. J. (1999). Evaluating the use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psychological research. *Psychological methods, 4*(3), 272-299.

Goldstein, S. E. (2011). Relational aggression in young adults' friendships and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18*(4), 645-656.

Goldstein, S. E., Chesir-Teran, D., & McFaul, A. (2008). Profile and correlates of relational aggression in young adults' romantic relationship.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3), 251-165.

Gros, D. F., Gros, K. S., & Simms, L. J. (2010). Relations between anxiety symptoms and relational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in emerging adul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4*(2), 134-143.

Hickman, S. E. (2006). Examining relational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in the workplace.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Section B: The Sciences and Engineering, 66*(10-B), 5731.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Jackson, S. M. (1999). Issues in the dating violence research: A review of the literatur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4*(2), 233-247.

Kessler, R. C., Berglund, P., Demler, O., Jin, R., Merikangas, K. R., & Walters, E. E. (2005). Lifetime prevalence and age-of-onset distributions of DSM-IV disorders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replication. *Arch Gen Psychiatry, 62*(6), 593-602.

Linder, J. R., Crick, N. R., & Collins, W. A. (2002). Relational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in young adult's romantic relationships: Association with perceptions of parent, peer, and romantic relationship quality. *Social Development*, *11*(1), 69-86.

Little, T. D., Rhemtulla, M., Gibson, K., & Schoemann, A. M. (2013). Why the items versus parcels controversy needn't be one. *Psychological Methods, 18*(3), 285-300.

Loewenthal, K. M. (1996). *An introduction to psychological tests and scales.* London: UCL Press Limited.

Loudin, J. L., Loukas, A., & Robinson, S. (2003). Relational aggression in college students: Examining the roles of social anxiety and empathy. *Aggression Behaviors*, *29*(5), 430-439.

Maccoby, E. E., & Jacklin, C. N. (1974).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Marsee, M. A., Kimonis, E. R., & Frick, P. J.

www.kci.go.kr

(2004). *Peer conflict scale*. Unpublished measure, University of New Orleans, New Orleans.

Marsh, H. W., & Hocevar, D. (1985). Application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o the study of self-concept: First-and higher order factor models and their invariance across groups. *Psychological Bulletin, 97*(3), 562-582.

Morales, J. R., & Crick, N. R. (1998). *Self-report measure of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Unpublished measure,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apolis.

Murray-Close, D., Ostrov, J. M., Nelson, D. A., Crick, N. R., & Coccaro, E. F. (2010). Proactive, reactive, and romantic relational aggression in adulthood: Measurement, predictive validity, gender differences, and association with 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44*(6), 393-404.

Nelson, D. A., Springer, M. M., Nelson, L. J., & Bean, N. H. (2008). Normative beliefs regarding aggression in emerging adulthood. *Social Development*, *17*(3), 638-660.

Olweus, D., Mattson, A., Schalling, D., & Low, H. (1980). Testosterone, aggression, physical, and personality dimensions in normal adolescent males. *Psychosomatic Medicine, 42*(2), 352-269.

Ostrov, J. M., & Crick, N. R. (2007). Forms and functions of aggression during early childhood: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School Psychology Review, 36*(1), 22-43.

Ostrov, J. M., & Houston, R. J. (2008). The utility of forms and functions of aggression in emerging adulthood: Association with personality disorder symptomatolog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9),* 1147-1158.

Parke, R. D., & Slaby, R. G. (1983).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In E. M. Hetherington(Ed.), P. H. Mussen (Series Ed.),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pp. 547-642). New York: Wiley.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Ruble, D. N., & Martin, C. L. (1998). Gender development. In W. Damon & N. Eisenberg,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Child psychology in practice*(pp. 933-1016). New York: Wiley.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 (Ed.), *Health psychology: Individual differences and stress*(pp. 89-108). New York: Springer-Verlag.

Stallman, H. M. (2010). Psychological distress in university students: A comparison with general population data. *Australian Psychologist, 45*(4), 249-257.

Storch, E. A., Bagner, D. M., Geffken, G. R., & Baumeister, A. L. (2004). Association between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and psychosocial adjustment in undergraduate college students. *Violence and Victims, 19*(6), 689-700.

Tabachnick, B. G., & Fidell, L. S. (1989).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New York: Harper & Row.

Tucker, L. R., & Lewis, C. (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1), 1-10.

Weber, D., & Robinson Kurpius, S. (2011). The importance of self-beliefs on relational

www.kci.go.kr

aggression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6*(13), 2735-2743.

Werner, N. E., & Crick, N. R. (1999). Relational aggression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in a college sampl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8*(4), 615-623.

White, J. W., Smith, P. H., Koss, M. P., & Figueredo, A. J. (2000). Intimate partner aggression: What have we learned? Comment on archer(2000). *Psychological Bulletin, 126*(5), 690-696.

Wright, E., & Benson, M. (2010). Relational aggression,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gender: An exploratory analysis. *Victims and Offenders, 5*(4), 283-302.

Xu, Y., Farver, J., Schwartz, D., & Chang, L. (2004). Social networks and aggressive behaviour in chinese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8*(5), 401-410.

원 고 접 수 일 : 2017. 05. 10
수정원고접수일 : 2017. 07. 17
게 재 결 정 일 : 2017. 12. 04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18, Vol. 30, No. 1, 55-79

Korean Version of Relational Aggression Scale for Undergraduate Students: Validation Study

Rayoung Bae **Jiyoung Choi**

Hannam University

Relational aggression is defined as behavior that causes relational harm. This study aimed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the Relational Aggression Scale developed by Morales & Crick (1998). To this aim, 313 undergraduate students were examined for construct validity through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concurrent validity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Gender related differences were identified using latent mean analysis. The relational aggression scale is comprised of 10 items, categorized into three subscales including three items on proactive relational aggression towards a goal-directed end, four items on reactive relational aggression displayed in response to a perceived threat, and three items on romantic relational aggression. The reliability was .55 to .74. The Relational Aggression Scale fulfilled concurrent validity criteria by showing positive correlation with aggression, anger and depression, and negative correlation with self-esteem. Female students demonstrated higher relational aggression than male students, especially with reactive and romantic relational aggression.

Key words : Relational Aggression, Undergraduate Students, Scale Validation, Reliability, Validity

www.kci.go.kr